

# 지난해 여수시 주요관광지 872만 명 다녀갔다

### 코로나19 위기 속 2019년 대비 35.6% 감소

### 청정도시 이미지 비대면 관광지 오히려 인기

여수시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난해 여수시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87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박람회 개최 이전 600~700만 명이던 관광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1,300~1,500만 명을 유지한 이래 최초로 감소한 수치로, 2019년 1,354만명에 비해 35.6%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오동도, 엑스포해양공원,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인기관광지 방문객 수도 30~40%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북선축제, 여수불꽃축제 등 주요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고, 관광시설의 잦은 휴관

과 입장객 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관광지의 방문객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문도, 캠핑장 등 비대면 관광지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방문객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철도역, 여객선터미널 등 공무원 24시간 발열 근무, 관광시설 직원 전담제 운영 등 시의 적극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도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5월 황금연휴와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타 도시보다 여수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

내 여행 재개 시 첫 국내여행 희망 방문지'를 조사한 설문 결과 기초지자체 중에서 여수가 1위를 차지해 국내 최고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조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여수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등, 시는 코로나19로 탈라진 비대면 여행트렌드 속에서 탁트인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연이 가득한 여수가 올해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변화하는 여행트렌드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에 대비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여수 미래관광을 견인할 관광중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수섬섬길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에 매진해 섬이 가진 매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과 스마트 관광도시를 추진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에 맞춰 도보여행 코스 개발 등 청정여수 비대면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각자 고통을 감내하며 청정여수 만들기 동참해 주

서 관광분야의 타격이 타 지역보다는 다소 적었다"면서, "여수가 세계 속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물론, 공영 주차장 확충과 정지와 친질을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관광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보성군, 침체 지역경제 활성화 발벗고 나섰다

### 보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보성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 보성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500억 원)하고, 카드형 상품권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별교전통시장 활성화 사업(258억 원)은 5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민의 10년 숙원사업인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760억 원)도 올해 첫 삽을 뜬다.

농공단지 분양율 100% 달성에 맞춰 △제2 조성 농공단지 신규조성도 시작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상업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청년 창업물 조성 및 신규일자리 사업(43억 원)과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운영도 예정 돼 있다.

## 별교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 제1조성 농공단지 신규조성

##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운영

특히, 보성군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환경 개선, 생활 SOC 확충, 청년창업,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의 계획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안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지역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역일자리 정책에 맞춘 희망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 지원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적 안정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등을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전남 고흥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전라남도가 추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 등 6개 분야 13개 지표 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성=김명순 기자

## 광양시, 치유 휴식공간 스마트가든 조성 참여기업 모집

### 22일까지 4개소 선정 완료...산단 유희공간 실내정원 조성



광양시는 노후 산업단지 실내에 근로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자 광양 산단 참여기업을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4개소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으로 산단기업 4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기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2개소(용강 도서관 등)를 포함, 총 6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가든은 근로자 및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희공간에 휴식·치유·관상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치장소와 조건에 따라 박스 형태로 조성되는 큐브형, 휴게실·회의실 등 소규모 공간 내 벽면을 활용한 벽면형으로 나뉜다.

또한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을 식재하고, 자동관수시스템 및 성장조명 등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SOC 및 산업단지를 대개조하는 협업사업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고흥군, 농작물 동해 예방관리 기술지도

### 유자·석류·키위 등 과수 피해예방

고흥군은 최근 연일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면서 유자, 석류, 키위 등 과수의 동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파에 따른 과수의 동해는 저온의 지속여부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며,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동결 후 해빙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심한데,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연속 -10°C이하로 내려가 동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동해피해를 받으면 과원 내 죽은 가지가 많이 발생하여 병 발생이 증가하고, 수세가 약화되어 착과량이 감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동해가 우려되는 과원은 날씨가 풀리는 오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고, 전정 시 동해 받은 가지는 제거 후 신속히 도포제를 처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가치는 가지치기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최소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유자, 석류, 키위 등이 과수 피해에 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동해 피해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동해 예방에 관해 적극 홍보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순천출신 수도권 대학생 대상 '순천학사' 입사생 모집

순천시가 수도권 지역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순천 출신 대학생(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순천학사'의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70명으로 남자 26명, 여자 44명이며, 대학생 68명(남 25,

여 43), 대학원생 2명(남 1, 여 1)이다. 원서접수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응시원서와 재학·입학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을 심사하여 오는 28일에 최종합격자

를 발표할 예정이다.

순천학사 입사생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평생교육과(061-749-6670, 67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살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문명

코로나19 방역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정·지구 상가 상인회

